

## 진시스템, 인도발 역대 단일최대규모 295억 원 본계약 체결

▶ 인도 결핵퇴치 프로그램 본격 시작...추가 계약 가능성 기대

▶ WHO·FIND·FEND 제품 승인 통해 인도 시장 기반 글로벌 확장 가능성 강화할 것

<2025-01-03> 진시스템이 인도 결핵퇴치 정책과 맞물려 역대 최대규모 수주 본계약에 성공했다.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363250, 대표이사 서유진)이 인도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진시스템은 2027년 3월 28일까지 약 2년 3개월 간 295억 원 규모의 현지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및 기타 소모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진시스템은 이번 계약이 현지 생산설비까지 포함된 공급계약이라는 점에서,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사업 본격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의 결핵퇴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결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결핵은 인도의 주요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로, 정부는 결핵 퇴치 프로젝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며 결핵 퇴치를 위해 진단, 치료 등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시스템은 인도 대리점인 제네틱스 바이오텍(Genetics Biotech)과 협력해 세계보건기구(WHO), FIND(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FEND(Feasibility of Novel Diagnostics)의 제품 승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승인을 진행중인 키트가 완료될 경우, 추가적인 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인도 정부의 결핵퇴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며, “인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결핵퇴치 프로그램에 앞장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및 글로벌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